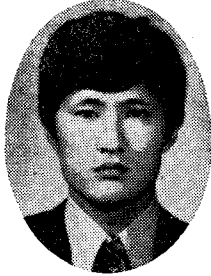


② 業界 / 마아가린, 쇼트닝

原料輸入關稅率은 先進國水準으로



徐 聖 勳

〈서울食品工業(株) 常務〉

1. 머릿말

우리나라는 60年代의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비약적인 發展을 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며 또한 賦存資源이 부족한 국가로서 貿易에 의존해야 한다는 當爲性은 접어 두고서라도 開放經濟로서의 資源配分 問題라든지 社會厚生增進 問題로서의 貿易의 自由化, 특히 輸入面에서의 自由化는 필연적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政府는 輸入自由化 豫示制와 더불어 今年 下半期부터 輸入自由化 率을 대폭 증가시켜 보편화되어 가는 保護貿易 障壁을 타개하기 위해 對外的인 실득력을 높이고 나아가 '86, '88 兩大 스포츠제전에 대비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배양을 主眼點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받아 들이고 싶다.

그러나 輸入自由化에 선행되는 問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 (1) 一次產品과 加工產品이 輸入됨으로 派生되는 幼稚産業 保護問題
- (2) 消費材의 輸入制限 철폐로 인한 展示效果로 國內의 소비수준을 높여 奢侈風潮를 助長함으로써 貯蓄率의 저하 및 新投資의 위험성加重과 國民間 위화감 유발可能性
- (3) 선진 제품과의 比較 劣位

(4) 國內 産業施設의 遊休化로 인한 雇用機會의 감소

(5) 國際收支의 惡化

물론 부수되는 모든 問題를 檢討하여 選定하고 順位를 정하였으리라 믿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모든 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 상태로 輸入이 開放되었을 때 많은 問題를 惹起시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와 같이 원부재료의 輸入 依存도가 지극히 높고 製品의 品質多樣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現時點에서 加工製品 輸入自由化는 더욱 신중한 選擇의 立案節次가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食用油脂 産業은 國民所得의 向上과 더불어 需要量이 每年 급속히 增加趨勢에 있다. 그에 따라 業界는 꾸준히 不足한 施設을 늘려 왔으며 '88올림픽을 전후한 豫想需要에 對備, 莫大한 資金을 投入하여 現 市場規模 이상의 施設投資를 하여 需要量보다 供給量이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부수하여 多額의 로얄티를 支給하면서까지 技術 導入을 서둘렀다. 그리고 每年 수십명의 海外研修를 실시, 점차적으로 技術向上에 總力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初期 단계에서 加工食品의 輸入門戶開放은,

1. 現在에도 當社의 경우 가동율이 60% 수

準으로 국내의 작은 市場마저도 侵蝕당해 이미 投與된 施設材에 대한 投資回收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2. 그나마도 熾烈한 國內 業體間的 出血競爭으로 經營收支가 惡化 일로에 있으며
3. 특히 包裝材 産業의 零細性으로 包裝 技術의 落後와
4. 國內 油脂施設 自體도 先進國에 비해 落後된 상태이며 技術水準 또한 習得중에 있어 이것 역시 중단 또는 死藏化될 우려가 있다.
5. 그리고 原料 및 加工製品의 關稅率 差異가 先進國보다 크게 나고 있어 輸入開放時 市場開拓과 輸出 獎勵策으로 dumping 浸透 可能性마저 있어 상당한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輸入自由化에 따른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의 어려운 狀況에 따른 사후 보강책을 마련하여 業界가 輸入開放이 되더라도 充分히 競爭力을 갖고 對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原料에 대한 關稅率은 낮추어야 한다.

마아가린과 쇼트닝의 原料가 차지하는 比重은 80% 이상으로 國內 油脂原料 資源의 빈약함에 기인하여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 完製品의 輸入이 실현되었을 경우 先進國家 즉, 미국, 日本의 油脂原料 輸入關稅率이 대부분 無稅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 우리나라의 關稅는 表 2에서 보다시피 거의 12%~30%의 高率 關稅를 賦課하고 있어 關稅率差異로 인한 生産 cost의 競爭에서 부터 불리한 입장이다.

물론 그간 稅收確保면에서나 國內 資源保護의 면에서 실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現時點에서 이 稅率을 그대로 維持하고 完製品을 輸入開放하겠다는 政府의 의지에는 納得할 수 있는 論理性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完製品

表 1. 國內豫示 關稅率

<단위 : %>

品 目		年 度	'84	'85	'86	'87	'88
原 料	牛 脂		12	12	10	10	10
	팜 유		12	12	10	10	10
	야 자 유		25	25	20	20	20
	면 실 유		30	30	25	25	20
	豚 脂		15	15	10	10	10
加 工 品	마 아 가 린 (쇼 트 닝)		40	35	30	25	20

表 2. 國別 關稅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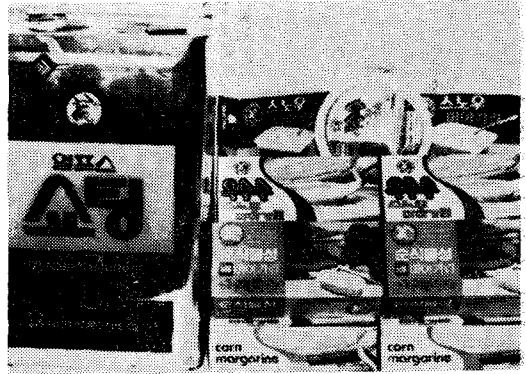
品 目		國 別	韓 國	日 本	美 國	臺 灣
原 料	牛 脂		12%	無 稅	\$0.43/Lb	7.5%
	팜 유		12%	無 稅	無 稅	7.5%
	야 자 유		25%	9%	無 稅	20%
	면 실 유		30%	¥17/kg	\$3/Lb	20%
	豚 脂		15%	無 稅	\$3/Lb	7.5%
加 工 品	마 아 가 린		40%	35%	—	45%
	쇼 트 닝		40%	25%	—	35%

의 輸入이 현실화되는 85年度의 稅率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完製品의 輸入 稅率을 오히려 5% point나 引下시키면서 原料에 대한 稅率을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것은 政策上의 錯誤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表 1에서 加工製品의 關稅率은 每年 점차적으로 引下시키고 있는 반면 油脂原料 部門에는 加工製品의 引下率보다 현저히 낮은 率로 引下豫示되고 있다.

또한 原料 確保면에서 볼 때 規模가 비교적 零細한 우리나라의 產業環境으로 多國化 되어 가는 國際企業과의 價格競爭면에서 優位를 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原料의 需給은 多元化 되어 있고 豫測이 곤란한 國際穀物市場에서 形成되고 있는 만큼 情報의 制限性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先物市場의 效率的 活用 등 規模의 經濟로 運用되고 있는 그들과 原價競爭에서 그만큼 뒤지고 있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에너지 cost가 다른 나라와 比較할 수 없을 정도의 高價인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稅制上의 支援은 필히 수반되어야 하며 그의 原料確保에 있어 金融的인 支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3. 原料輸入 制限品目도 開放시 켜야 한다.

消費材 輸入의 增加에 따라 消費者의 嗜好 역시 多樣化되어 간다. 같은 商品이라도 消費者의 嗜好에 따라 그 效用이 달라지게 된다. 이같이 消費者가 어느 特定商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選好하고 있는 商品에 대하여 더 높은 價格을 支拂하고서라도 그 商品을 持續的으로 消費하게 되어 있다. 商品의 差別化는 國內產業, 특히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에서 크게 부딪치는 問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油脂原料로 몇개 品目を 제외한 해바라기油, 菜種油, 옥수수油, 大豆油 등 대부분의 品目



이 國內農產物 保護側面에서 輸入制限을 받고 있다. 따라서 高價의 資源이며 더우기 物量 絕對不足인 原料를 國內에서 購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狀況에서 品質의 多樣化를 기하기란 사실상 難點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向後 完製品이 輸入되었을 때 輸入製品의 品質에 어떻게 對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國際貿易이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이 機會에 比較劣位產業은 과감히 整理하여야 할 것이며 比較優位產業에 力點을 둘 必要性이 있다 하겠다. 向後 製品의 高級化를 追求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輸入自由化의 均衡을 위해서도 必要 部分에 한해 非關稅障壁도 開放시켜야 할 것이다.

4. 完製品은 輸入先 多邊化 品目으로 告示하고 調整關稅 및 緊急關稅 制度의 適用이 要求된다.

만약 完製品이 輸入開放되었을 때 必然的으로 輸入國은 先進國家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같은 輸入國의 偏在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業界의 立場으로서는 가능한한 輸入先의 選擇을 低開發國으로 限定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다. 이것은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하나의 方法論이 될 수 있으며 또한 完製品이 輸入될 때 問題點을 除去하기 위해 國內產業이 幼稚단계를 벗어 날 때까지는 暫定的으로 調整關稅制度를 適用 輸

入의 緩和을 기해 보는 것도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施設 現代化 支援을 強化하고 包裝材 産業 등 聯關産業의 連繫 育成이 시급하다.

따라서 輸入自由化가 國際經濟에서 對外貿易環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改善해 나가는 能動的인 對外開放戰略이며 生産者 中心의 獨寡占 品目を 開放시켜 外國 製品과의 競争을 유도함으로써 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消費者를 保護해야 한다는 命題에는 異議를 提起할 수 없을 줄이나 그것이 실득력을 부여하기 위한

論理的 근거라면 逆으로 이것이 과연 生産者 側面에서의 環境改善努力 不足과 利潤追求만 指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것은 疑問이다. 현재 業界에서도 不斷히 輸入開放 政策과 더불어 對外的인 競争力 強化를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이것이 成熟되는 '88년 이후로 調整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輸入開放政策이 여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狀況이라면 이러한 輸入自由化의 물결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生産者는 生産者대로 消費者는 消費者 나뉘대로 또한 政策立案者는 政策立案者대로 輸入自由化가 미치는 衝激을 서로 合心하여 完화시켜 나가는 方向을 적극 模索하여야 할 것이다. ■

② 業界/肉加工品

政策次元의 原料需給對策이 必要



安 泰 郁

〈第一製糖(株) 企劃室長〉

1. 國內 肉加工事業 現況

우리나라 肉加工事業이 最初로 시작된 것은 1950年代 末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肉加工製品은 魚肉加工製品이 대부분이었으며 本格的인 畜肉製品이 生産된 것은 食生活이 高級化 되기 시작한 '80年代부터이기 때문에 國內 肉加工事業은 그 歷史가 짧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國內 肉加工業體 數는 8個 業體이며

그중 4個業體에서 畜肉製品을 本格的으로 生産하고 있고 나머지 業體는 아직 混合소세지 위주의 生産을 면치 못하고 있다.

畜肉製品을 生産하는 業體의 總 生産能力은 연간 18,000톤으로 畜肉製品의 '83年 市場規模인 6,000톤에 비하면 稼動率은 33% 水準에 머물고 있다. '83年 현재 畜肉製品과 混合製品의 市場比率는 2:8(物量基準)로 점차 畜肉製品의 需要가 擴大되어 가는 추세이다.

지난 80年 이후 國內 肉加工 市場은 每年

■ 特輯 /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 과연 現實的인가!

30% 이상의 伸張을 거듭하여 '83년에는 540億 원 市場規模로 成長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食生活의 西歐化, 간편화에 따른 Fast-Food 産業의 급격한 성장과 아울러 '86年, '88年 올림픽을 전후하여 안정케도에 올라서면서 市場規模는 약 1,700億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現在 肉加工工業界가 안고 있는 문제 점도 많다. 總原價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原料豚의 需給이 不安定하고 價格 또한 30~32個月 週期로 騰落하고 있어 安定的 原材料 調達이 問題가 되고 있다.

또한 肉加工工業의 歷史가 짧은 만큼 技術人力이 不足하여 人力需給에 隘路를 겪고 있으며 技術 역시 先進國 水準에 未達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國內 市場規模가 적어 多品種, 小量生産의 傾向으로 흐르고 있고 이로 인해 生産性이 낮아 自動化가 미흡하다는 點 등이 問題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와 그 影響

政府는 先進國의 韓國商品 輸入規制措置와 對韓 輸入開放 要求에 對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培養, 輸出增大를 꾀하기 위해 '82년부터 輸入自由化 政策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3月에는



햄을 비롯한 肉加工製品도 '86년부터 輸入自由化 品目으로 예시되었다(表 1).

이러한 輸入自由化 措置에 따라 肉加工製品의 輸入은 可能하지만 肉加工製品 特性上 一部 製品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一般 眞空包裝의 햄, 베이컨, 소세지 제품은 현재 國內 畜産物 加工處理法上의 保存期間 問題(제조일로부터 30日 이내이며 輸入通關時 檢疫에만 15日 所要되므로 通關後 15日 이내에 全量 流通消費시켜야 함), 運送 및 保管問題(國內 Cold Chain System의 未備), 期間 經過品 處理問題 등으로 事實上 輸入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CAN製品의 경우 保存期間이 2년이 나 되고 流通에도 Cold Chain System이 불필

(表-1)

CCCN	品名	관세율 (%)						備考
		'83	'84	'85	'86	'87	'88	
0206-0101 0102	햄 베이컨	40	40	40	35	35	30	'86년 이후 수입부과금 부과조건부 수입자동승 인품목.
1601-0100	소세지	50	40	40	35	35	30	
1602-0101 0102 0103 0104	통조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고기)	40	40	35	35	35	30	

(表-2)

項 目	國 內 製 品	美 國 產 製 品
品 質	○ 多品種 · 多單量 · 小生産으로 生産性 低下	○ 單一品種 生産전문화로 生産性 高 ○ 다양한 Diet 지향제품생산(고단백 · 저 칼로리 식품)
原 料 需 給	○ 代替원재료 사용한계 및 원재료 수급 불안정 및 가격의 불안정 ○ 원료豚價高(미국의 2배 정도)	○ 원재료 수급안정 및 代替원재료 사용 ○ 원료豚價 低
包 裝 材	○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수입관세 30%	○ 자급자족
稼 動 率	○ 성 · 비수기간 가동을 격차 큼 (축, 고정비 부담이 큼)	○ 생필품으로 가동을 평준화 (고정비 부담 낮음)
販 賣 體 制	○ 유통 Cold Chain 미비로 반품 폐기율 높음	○ Cold Chain System 완비
其 他	○ 수요 개발 비용 부담 큼	○ 生必品化

요하여 日本의 경우도 輸入 市販되고 있는 製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輸入이 가장 有力視된다. 이러한 輸入 CAN製品의 種類는 Corned Beef, Ham, Luncheon Meat, Chicken Sausage, Frank Sausage, Vienna Sausage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輸入 可能性있는 品目으로는 Dry Sausage를 들 수 있다. 이 製品은 保存期間이 2~3個月 정도로 一般製品보다 길지만 아직 國內 需要層이 없어 生産業體가 없다.

수입예상국으로는 國內 暗市場을 통해 Brand Image가 확보되어 있는 美國産이 가장 有力하다. 日本은 近距離로서의 利點을 안고 있지만 日本 自體도 肉加工 輸入國에 속하고 商品力이나 原價面에서 큰 強點이 없으므로 輸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産 製品은 價格 競爭力은 상당하나 美國産에 비해 Brand Image가 낮은 점에서 美國産보다 輸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國內 肉加工製品과 美國産 製品을 比較해 보면 表 2와 같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 製品은 輸入

品에 비해 根本적으로 競爭力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國內 肉加工業의 原料인 돼지價格이 美國의 2배('80~83年 平均時勢 基準)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원료측면에서 부터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肉加工品은 生必品으로 地域別, 工場別로 製品을 大量生産하는 반면 國內業體는 多品種, 小量生産으로 生産性 差異로 인한 고정비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아직 국내시장 기반이 미약함으로써 消費者 의식제고와 시장기반 확충을 위해 業體는 많은 需要開發 費用을 投入하고 있어 原價 加重의 한 要因이 되고 있으며 肉加工 관련 包裝材의 대부분이 輸入되고 있고 輸入時 關稅 또한 30%의 高率이어서 原價面에서 不利한 立場이다. 또한 국내 流通上의 Cold Chain 未備로 인해 流通過程에서 變質 등 品質 問題點이 發生되어 返品되는 物量도 많아 이것 역시 經營上의 큰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는 消費者들의 外製選好思想과 더불어 이제 市場 導

入期에 있는 國內業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좁아진 市場에서 競爭은 더욱 치열해져 一部 業體는 淘汰되고 過當競爭은 마아케팅費用 增加 등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의 肉加工業이 萎縮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輸入自由化 영향으로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國內業界의 海外技術導入 및 技術提携가 活發해질 展望이고 이에 따라 品質向上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3. 輸入自由化에 따른 業界對策

이러한 불리한 與件속에서 우리나라 肉加工業이 계속 成長, 發展해 나가려면 業界自體로서는 우선 品質 및 技術力을 向上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라 하겠다.

그리고 獨自의인 製品開發과 多樣화로 潛在需要를 創出해 가야 한다. 즉, 輸入豫想 品目인 CAN製品의 多樣化 및 品質向上으로 市場基盤을 우선 구축하고 海外 技術提携 및 技術協力 強化, 技術研修 등으로 基本的인 技術水準의 Levelup이 필요하다. 또한 持續的인 製品 多樣화로 新規需要를 계속 創出해 나가며 季節의 需要差異를 줄여 稼動率을 높여 가는 한편 原價節減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政府에서는 國內 畜產業의 育成이란 관점에 서 輸入品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輸入自由化는 국내 경쟁력이 강한 製品부터 단계적으로 實施하여 業界의 技術發展과 競爭力 強化를 誘導해야 한다.

둘째는 原料豚 需給을 安定시킬 수 있는 根本的 對策이 있어야 한다. 즉, 精確한 需要 및 供給豫測으로 原料輸入 調達 등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셋째, 製品의 輸入自由化 이전에 原料의 輸入自由化로 肉加工業界의 根本的인 強化를 위

한 與件을 造成해야 한다.

넷째, 製造日字, 流通期間, 運送 및 保管條件 規制 등 輸入品에 대한 별도 표시 규격을 制定하여 非關稅障壁을 強化시켜야 한다.

參考로 日本의 輸入自由化의 例를 살펴보면 最初 輸入自由化 時期는 1971年 下半年期로써 1964年 동경올림픽 이후 國內 食品産業이 도약단계가 끝난 時點이었다.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 이전에 原料에 대해 輸入自由化를 行하였으며 製品에 대해서도 品目別로 輸入을 自由化함으로써 業界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이후에 이루어졌다.

즉, 需要가 그다지 크지 않은 사라미소세지, 생햄, 숙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햄類 등 生産性이 낮거나 日本 國內에서 生産하는 것이 非效率的인 製品부터 단계적으로 輸入을 自由化 하였다.

또한, 製品 輸入自由化 이전에 政府는 業界의 건의를 받아 들여 肉加工業體에 대한 稅制·金融上의 지원, 原料肉 輸入에 대한 外換割當制의 폐지를 통해 전면적인 原料肉 輸入自由化 등을 年次的으로 實施하였다.

현재 日本의 輸入現況은 高率關稅 政策으로 지속적인 輸入制限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輸入關稅率은 6~8%이며 原料肉의 輸入關稅는 0.9%이나 제품의 수입관세는 最高 25%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日本 流通業界에서 最終 消費者 價格은 런치미트 캔製品(340gr기준)價格을 基準으로 日本產은 400엔이나 美國產은 1,000엔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價格 競爭力에서 原料肉의 價格差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輸入賦課金을 策定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多方面에 걸친 노력으로 政府에서 의도하는 國際競爭力 強化가 이루어지고 品質 向上이 達成되도록 業界와 政府가 다함께 努力해야겠다. ■